"매출 1,000억 유통법인 100개 육성"

■농림수산식품부 업무보고

'농어촌 뉴타운' 사업 추진

이명박 대통령이 18일 전주시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열린 농림수산식품부 업무보고에 앞서 정운천 농림장관, 김완주 전북지사 등과 함께 진흥원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매출액이 1천억원을 넘는 대규모 농수산유통법인이 시·군 단위로 전국에 100개 정도 들어서고, 감귤·양돈 등 품목별로 한국판 '썬키스트'와 같은 대표 생산자 조직도 결성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전주시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농수산식품 유통 혁신 차원에서 ▲시·군 단위 유통회사 ▲품목별 국가 대표조직 ▲대규모 농어업회사 등이 육성된다. 대규모 농수산 유통회사를 통해 마트·백화점·외식체인점 등 주요 수요처에 대한 가격 협상력을 키우고, 품목별 생산자 조직이 수급 조절과 품질 개선 등 자체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는 취지다.

시·군 단위 유통회사는 농어업인·지자체·농수협·기업 등의 출자로 설립되는 전문 경영인 체제의 자본금 100억원 규모의 독립법인으로, 정부는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해당 지역 생산물의 3분의 1 이상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매출 1천억원 이상'을 적정 설립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다.

미국 감귤류 생산자 조직 '썬키스트'를 모델로 한 품목별 대표조직은 현재 생산 규모가 3천억원이 넘는 품목에서 추진된다. 현재 조직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감귤·양돈·넙치 등이 우선 대상으로 거론됐다.

경쟁력을 갖춘 농업 전문 경영인을 기르기 위해 내년까지 다른 분야 임원급 출신 100명을 선발, 국내외 선진 농수산 현장 방문 등이 포함된 'CEO MBA(경영학 석사)' 교육 과정도 정부가 진행한다.

아울러 30~40대 젊은 농업 인력 확보 방안으로 '농어촌 뉴타운' 사업이 시범 추진된다. 100~300세대 규모의 전원형 임대주택 단지 형태로 주거 환경과 교육 여건이 잘 갖춰진 '뉴타운'을 건설, 도시로 떠난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인다는 전략이다.

식품 연구·개발 허브로서 '전북 식품클러스터'의 경우 8월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해 2012년 단지 조성을 마무리한다. 비슷한 형태의 시·군별 특산식품 클러스터도 140개 정도 만들어진다.

이 같은 연구·개발·생산 인프라 구축과 조리법 및 명칭 표준화, 해외공관 연계 홍보 등 '한식 세계화' 작업이 기대만큼 성과를 거둘 경우 2012년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6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연합뉴스

한, 낙천자 무소속 출마 봇물

지역구 의원 탈당 잇따라 … 4·9 총선 변수로

공천에서 탈락한 한나라당 지역구 의원들의 무소속 출마와 탈당이 잇따르고 있어 4·9 총선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현재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지역구 의원은 모두 42명. 이중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거나 적극 검토하고 있는 의원은 2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전 대표 쪽 의원들이 이미 '친박(親朴) 무소속 연대' 형식으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친이(親李·친 이명박) 계 의원들도 속속 무소속 출마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 한나라당 후보를 위협하고 있다.

친이(親李) 진영 의원 중에서 이원복(인천 남동을) 의원이 가장 먼저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17일 "공천 재심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말했다. 박성범 의원(서울 중구)의 부인인 신은경 전 KBS 앵커는 자유선진당에 입당, 서울 중구에 출마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권에서는 권철현(부산 사상) 정형근(부산 북·강서갑) 이재웅(부산 동래) 김명주(경남 통영·고성) 강길부(울산 울주) 의원 등이 무소속 출마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5선의 박희태 전 국회 부의장(경남 하동·남해)도 18일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장고 중"이라고 밝혔다.

강길부 의원 측은 "지역 내 여론조사나 의정활동도 좋았는데 '계파 안배' 때문에 희생된 것"이라며 "현재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형근 의원도 현재 일체 연락을 끊은 채 지역구에서 무소속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박계에서는 김무성 의원(부산 남을)이 이미 탈당 뒤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고 허주 김윤환 전 의원의 동생인 김태환 의원(구미을)도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탈당 및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유기준(부산 서) 이인기(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도 19일 각각 지역구에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며, 박종근(대구 달서갑) 이해봉(대구 달서을) 이경재(인천 서·강화을) 한선교(경기 용인수지) 의원도 무소속 연대에 동참키로 했다. 또 이규택(여주·이천) 엄호성(부산 사하갑) 의원은 '친박 정당'인 미래한국당을 통해 총선에 나갈 계획이며, 이진구(충남 아산) 의원은 자유선진당 입당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들이 대거 무소속 출마로 방향을 틀면서 영남권 곳곳에서 공천을 받은 정치신예들과 낙천 의원 간 예심에 이어 본선에서도 불꽃튀는 혈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또 수도권에서는 한나라당 출신이 맞붙으면서 아직은 당 지지도가 미약한 통합민주당 등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당 멋대로 공천, 실패"

YS '직격탄'에 한나라당 안팎 술렁

부산을 방문한 김영삼(YS) 전 대통령이 18일 한나라당 공천 결과에 대해 "민의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아주 실패한 공천"이라고 직격탄을 날리면서 한나라당 안팎이 술렁였다.

경선 당시부터 이명박 대통령을 적극 지원했던 김 전 대통령이 예상 밖의 수준으로, 그것도 공개적으로 "멋대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을 공천해 버렸다", "잘못한 공천이다"는 등 당 공천 결과를 맹비난하자 당직자들은 당혹해 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한 핵심 당직자는 발언의 배경에 촉각을 세우면서도 "이번 공천에서 탈락한 일부 민주계 인사들에 대한 배려가 담긴 언급으로 이해한다"고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

친이(親李·친 이명박) 의원들 사이에서는 아들 현철씨나 측근들의 공천 탈락과 관련된 개인적인 섭섭함이 묻어난 의견이라는 반응에서부터 "말은 바르게 했다"는 얘기까지 의견이 엇갈렸다.

부산 지역 한 친이(親李·친 이명박) 의원은 "개인적 감정이 결부된 것이 아니냐"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공천이라는 정치의 가장 예민한 현실 정치의 부분에 대해 그렇게 과도하게 언급한 것은 원로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비판했다.

수도권의 한 친이 의원도 "상도동 민원은 하나도 안 들어준 데다가, 김무성 의원이나 김덕룡 의원 등 민주계 남은 사람을 다 날리니 쌓인 게 터진 것 아니냐"고 분석했다.

하지만 그는 "자기 감정 때문에 한 얘기지만 YS의 말이 상황상은 맞는 말"이라면서 "공천을 해놓고 보니 오히려 개악된 곳이 많다는 지적이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연합뉴스

서울 여성 파워 맞짱

신은경씨 자유선진당 입당 중구 출마…나경원과 대결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의 부인인 신은경 전 KBS 앵커가 18일 자유선진당에 입당해 4·9 총선에서 서울 중구 출마를 선언했다.

신 전 앵커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정권이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겸손하게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를 통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견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전 앵커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기초로 하는 선진당의 창당이념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선진당행 결심배경을 설명한 뒤 "12년간 정치하는 남편과 함께 중구 주민들과 동고동락했다. 정치의 심장부인 중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아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신 전 앵커의 출마 선언으로 서울 중구 총선은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나경원 전 대변인과 함께 여성 대결 구도가 형성돼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통합민주당은 중구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정해 후보 선정작업을 계속중인 상태다.

/연합뉴스